

Appendix 7. 학생평가 도구: 수용할만한(3점) 이상의 성찰 글쓰기 내용

평가항목	학생	수용할 만한(3점) 이상의 성찰 글쓰기 내용
성찰 글의 구조(상황 설명, 객관적 견해, 분석과 판단, 계획)가 짜임새 있고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다.	A	“우리나라는 다중질환, 건강불형평성, 불평등 심화, 초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한 사람의 질병은 거미줄 모형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고, 의료진은 거미줄 모형의 질병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원인을 생각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역량이 바로 시스템사고이다. 특히 다중질환의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진들은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시스템사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미래 의료상황에서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B	“시스템사고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G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수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시스템사고의 첫 번째 중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수업내용의 실례를 들어서 자신이 배운 바를 상기하거나 수업내용을 분석하였다.	C	시스템사고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D	“병원은 눈앞에 보이는 요소들만 생각하기 보다는 시스템사고 과정에서 병원의 재정적 요소 및 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 등 숨겨진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E	“시스템사고란 어떤 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과 요소를 다 찾아서 거대한 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거미줄처럼 얽여 있는 이 원인구조를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해결에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가 시스템사고이다.”
	F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생기면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자 급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시스템사고를 한 시점부터 저희 조는 완전히 달라졌고 많은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사고를 실제 의료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가정해 보고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대한 기술하였다.	D	“노인환자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특성들은 시스템사고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환자의 경우 처방 받은 약에 의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과정에서 배운 부담 떠넘기기 모형을 바탕으로 약의 부작용이 노인환자의 치료의 목표인 생활 개선에 있어서 오히려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파악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G	“담당하던 환자의 활력징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응급실에 환자가 급격하게 몰려드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시스템사고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 믿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으며 향후 행동 변화에 대한 다짐이 있다.	B	“직업 특성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의사는 특히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개별 사항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조직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 중요할 것 같다.”
	C	“의사가 되어서도 이런 일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많은 딜레마를 겪고 그것을 최선의 방향으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겪을 것이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익혀 두어야 할 것이 시스템사고를 하는 법인 것 같다. 이번 과정을 통해 그 중요성을 확실히 체감하였고, 틈틈이 체화하여 나의 역량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D	“시스템사고는 전체적인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고 및 숨겨진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환자의 질병과 감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숨겨진 요인을 잘 파악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스템사고는 의사에게 더 나아가 모든 의료진에게 필요하다고 느낀다.”
	F	“단순하게 일어날 법한 일들임에도 루프를 통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루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여러 가지 루프를 연결시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시스템사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미래에 의료현장에 투입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시스템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